

순천시, “판소리 ‘수궁가’와 순천만 ‘용산 설화’가 만나다”

26일 가족 창극 ‘순천만 수궁가’ 무료 재공연 순천만국가정원 내 순천만국제습지 공연장 내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26일 순천만국가정원 내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야외공연장에서 가족 창극 ‘순천만 수궁가’를 무료로 재공연 한다. ‘순천만 수궁가는 판소리 수궁가

의 뼈대에 순천의 용머리 설화를 차용해 창작된 창극이다. 작년 말 공연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명나는 가족 창극으로 호평을 받았다. 순천만의 용산에는 순천만에 살

던 천 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돼 승천을 하다가 아름다운 순천만의 경치에 반해서 그대로 내려앉아 지금의 용산이 됐다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예술 감독을 맡은 이재영 명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을 소재로 한 전통 공연 콘텐츠를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게 돼 뿌듯하다.”며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순천의 명소를 소개한 ‘순천가’와 관객의 소원을 빌어주는 소원성취 발원 장면 등을 명장면으로 꼽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무성국악진흥회의 이형영 대표이사는 “내년에 열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공연예술 콘텐츠로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단체로서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 자긍심을 높이는 공연들로 지역민과 함께 하겠다.”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유빈 기자

여수시, 여순사건 피해 신고 총력 대응 현재까지 560건 접수,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5개월 남은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에 단 한 명의 희생자와 유족이라도 더 신고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며, 5개월 남은 지난 8월 19일 기준 여수시에 560건(전남도 2천733건)이 접수돼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이 지나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 연좌제 피해로 인한 신고 기피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여수시에서는 올해 3월부터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와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사실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방식이다. 피해 신고 시 희생자·유족의 가족관계, 피해사실, 보증인 보증서 등이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고인이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입원 중일 경우 사전에 장소를 협의해 방문하기도 한다. 시는 1년이라는 짧은 신고 기간을 감안해 최대한 많은 피해사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찾아가는 피해 신고’, ‘원스톱 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존된 사료와 진실화해위원회 자료 등을 분석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발굴을 진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 신고 기간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단 한 사람, 단 한 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피해 신고’, ‘원스톱 서비스’ 등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구례, 10월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구례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군청,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는 점심시간을 보장받기 힘들었던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처우 개선과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례군공무원노조와의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조치이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는 점심시간이 12시~13시까지 명시돼 있으나, 주민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에 교대로 근무하며 민원을 처리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민원부서 근무자들의 점심시간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홈페이지, 반회보 및 전화 연결음 송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6개 면에도 내년까지 무인발급기를 설치 완료해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전라남도 내 12개 지자체에서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부분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나머지 일부 지자체도 전국적 추세에 따라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건식 기자



최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제6회 광양 선샤인배 전국 댄스 스포츠대회’가 전국 13개 시·도 230여 명의 댄스 스포츠인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총 38개 부문 3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그간 연습해온 기량을 맘껏 펼쳤다. /광양시 제공

광양 선샤인배 전국 댄스스포츠대회 성료

전국 13개 시·도 230여 명 댄스 스포츠인 참가

최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제6회 광양 선샤인배 전국 댄스 스포츠대회’가 전국 13개 시·도 230여 명의 댄스 스포츠인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총 38개 부문 3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그간 연습해온 기량을 맘껏 펼쳤다.

광양시에서는 포메이션 1팀(8명), 개인전 3팀(6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한편, 생활체육·전문체육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아마추어 라틴 부문에서 김민수/김나연(전남), 아마추어 모던 부문에서 석수안/김세아(전북) 선수가 각각 우승

의 영광을 차지했다. 박상훈 체육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전국 댄스 스포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 되는 멋진 하모니 연출로, 댄스 스포츠가 대중에게 더욱 가까워진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댄스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곡성, 제4회 한국문화가치대상 최우수상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 수상 쾌거 달성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제4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우수상에 이어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한국문화가치대상은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상으로 (사)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가 주관한다. 곡성군을 포함해 지역만의 특색있는 문화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한 총 30개의 자치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곡성군은 ▲곡성읍 스트리트 갤러리 조성, ▲곡성 스테이션1928, ▲기차당 독방마켓 운영, ▲곡성 심청어린이대축제 등 지역의 독창성을 살린 문화관광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또한 ▲곡성세계장미축제 비대면 행사 추진, ▲모바일 관광안내서비스 기반 조성,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행복한 곡성 학습생태계 기반 조성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존 사업에 변화를 모색하며 지역민의 문화 욕구를 해소한 점도 높이 인정받았다. 곡성군 관계자 “민선 8기에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곡성생태도서관 건립, 청소년 문화바우처카드 신규 지급, 가정역권 야간 관광지 조성, 평마을 조성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 정책 등 지역민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심선섭 기자